

1/6~7 학내 서명운동

1/8 11시 한총련 OT기행단 특이.) 2시 5시 4차 연세비대위

여성자치연합(준) 3차 회의 안건 및 제안

아래
1/4 DEKICOM(시)
10시 8시 4차 연세비대위

논의 안건

1. 한총련 성추행 기소 촉구 서명운동
2. 각 단계 처리 정비
3. 중운위 및 오티 기획 보고
4. 여성자치연합 오티 기획
5. 내부 체계 제안

제안

1.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에 대해
2. 중여학생화살 공간 사용에 대해
3. 겨울방학 현장 활동

논의 안건

1. 한총련 성추행 기소 촉구 서명운동

현재 유인물은 작성이 된 상태이며, 서명용지 작성 및 서명이 남아 있다. 서명 기한은 7일 까지이며, 오늘부터라도 실질적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학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서관에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서명 운동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권력 성추행에 있어서 이번 작업이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 예전에 논의했듯이, 한총련 사태 한의 배경에 불과하고, 이제는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을 전반적인 차원에서 공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위의 투쟁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번 서명운동을 계기로 해서 문제의 지점을 옮겨 여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서명운동을 맞이하면서 자기도 불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2. 커리 정비

커리를 정비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서로의 활동/학습을 알리는 것과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학내에서 여성학을 보다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방법
- 오늘의 책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 보다 나아가서 어떻게 여성학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3. 중운위 회의 및 오티 기획에 대한 보고

그 동안 논의했던 것들은 주요하게 두 가지 - 신입생 수련회와 연세비대위

1)신입생 오티

한총련 사태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학교 당국은 신입생 오티를 학사일정으로 제도화시켰다.

a)수련회

-수련회 기획을 학교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데에 있어서 사과를 요구했으며 사과를 받아냈다. 그리고 모든 명의를 대학과 학생회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함.

-수련회 일정

- 17일 - 19일 신입생 오티
- 20일 - 22일 신입생 수련회

-수련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5만원의 고지서가 신입생들에게 갈 것. 경비는 4개의 기준으로 측정된 것이다. 2박7식의 숙식비, 간식비, 교통비 및 행사진행비

그 외에 학생회에서 준비하는 큰 행사 (공연, 강연) 등은 학교에서 전면 지원해주는 것이 합의

b) 기타 오티 일정

17일은 잠실체육관에서, 다음 이틀은 학교에서 진행된다. 잠실 프로그램과 나머지 이틀 프로그램은 학교 기획단과 학생 공동 기획단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2)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연세인 비상대책위원회

연세 비대위는 현재 활동으로 들어간 상태이며 집행 체계도 꾸려졌다. 위원장 : 부총학생회장, 집행부장 : 장동혁, 투쟁국장 : 박기원, 편집부장 : 강길룡, 선전부장 : 임수연과 ?

단대학생회장 중심으로 하되 다른 정치조직들도 참여할 수 있다.

* 중운위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중운위에서 기본 골격이 짜여졌다. 여성자치연합 차원에서는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

4. 여성자치연합 오티 기획

여성자치연합에서 기획단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다. 각 단체에서 한 명 내지는 두 명으로 구성하고, 이 팀이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오티를 기획/추진한다. 학생회 오티 기간에 사실상 오티를 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학생회 중심으로 흘러가는 일정에 항상 '여성'과 관련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오티는 '간단하게' 하고 3월 달에 자치연합에서 독자적인 오티/문화제(?)을 하는 것을 합의했다. 시간이 넉넉한 듯하면서도 시간이 상당히 없는 상황이다.

-총학생회 중앙기획단에 결합해 첫 사흘 기획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2월 오티는 자치연합에서 독자적으로 기획하는 것보다 학생회 기획에 함께 참여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중앙기획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획이 있어야 한다. 즉, 내용과 장소 시간 등을 세부적인 것까지 기획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할 것이다.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미 학교당국과 중앙기획단은 기획에 들어갔으며 이미 몇 가지 (여태까지는 수련회가 주요)를 합의한 상태이다.

-3월 오티도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위에서 밝혔지만 학교 당국에서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직까지는 총여-연합 체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학교와 싸워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획/재정안 등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한다. 각 단위에서 기획이 올라오고, 이것들이 내부 기획단에서 조절되어 전체 기획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5. 내부 체계

단 한 번에 체계를 결정짓는 것보다 매번 회의를 거쳐서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어떠한 체계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러한 상태에서는 호지부지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 여성자치연합(준)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시키는 작업도 중요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상황이 약간 모호하고 아직까지는 공식화된 조직이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과 구성 단위의 내용들을 모아 현재의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 다른 학교에서도 공급해하며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 입장을 공유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제안

1.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에 대해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성'적인 입장을 취할 부분은 없지만, 노동법과 같은 경우는 여성계에서도 여론화 시킬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한국 산업 구조 상 노동법이 개악되면 '일반

'노동자보다도 여성노동자에게 타격이 이중으로 간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모성보호 관련 법안들이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부분 없어졌다. 날치기 통과로 현재는 긴박한 상황이며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 이 속에서 여성 문제는 많이 묻혀지기 마련이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큰 활동을 벌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학내에서 선전을 하는 것은 어떠한가.

2. 총여학생회실 공간에 대해

연휴 동안 총여실이 비어 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이에 여러 단체에서 무단 침입(?)을 해 방을 사용했었다. 이것은 단순히 허락을 받고 받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이 공간이 만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문제이다. 공간이 어떠한 공간인지에 대한 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바깥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3. 겨울방학 현장활동을 제안한다.

현재 the other에서는 현장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참누리는 매춘여성, 에이즈 걸린 여성 또는 동성애자 등 우리 사회에서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단체이며 대학생 대상으로 교육 및 현장활동을 하고 있다. 일단은 학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고 이후 성과가 쌓이면 공공을 할 예정이다.